中日템플스테이 부상…韓 시장경쟁 강화를

문화사업단, 12월 9일 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

제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日, 슈쿠보 · 테라하쿠에 지원
中, 불교협 사찰에 예산 투입
"품질관리 · 공공성 강화 통해
템플스테이 '동력'을 만들어야"


심창섭 사무국장


전병길 교수

내년에 운영 2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중국과 일본 방식의 템플스테이가 꼽혔다. 한국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중국과 일본의 템플스테이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템플스테이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된 '2021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 9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 · 중 · 일 템플스테이 정책을 비교하고 템플스테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심창섭 한국관광학회 사무국장은 일본 · 중국 템플스테이 사례를 조사 발표했다. 심 사무국장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미래 일본 관광 비전'을 발표하고 문화재를 보존 우선에서 이해 · 활용으로 전환했다. 일본 방식의 템플스테이는 '슈쿠보(宿房)'라고 불리며, 7만여 곳에서 승려, 참배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슈쿠보의 관광 목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민간컨설팅업체들도 생겨났다. 2018년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는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이 시행되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찰에서 슈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16년 발표한 '관광 비전'에 따라 성 · 사찰 등을 활용해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 '시로하쿠(成泊) · 테라하쿠(寺泊) 역사자원 활용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엔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국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심 사무국장은 한계점은 있으나 미래 잠재력은 풍부하다고 봤다. 웰니스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불교 뿐 아니라 도교, 태극권 등을 중심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어서다.

중국형 템플스테이는 중국불교협회 소속 사찰에 예산이 배분돼 개별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특히 우타이산(五臺山), 어메이산(峨眉山), 텐타이산(天台山) 등에서 사찰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심 사무국장은 "중국은 적극적 종교활동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 템플스테이는 현재 한계점이 있으나 전역에 위치한 풍부한 불교문화, 자연경관 등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잠재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인바운드 시장에서 한국 템플스테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템플스테이 경쟁력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템플스테이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템플스테이가 유 · 무형의 한국불교 전통문화자원으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의 템플스테이가 부상하고 있어 한국 템플스테이의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템플스테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기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시장 경쟁적 운영을 위해 운영사찰 평가 시 수익 지표 및 품질관련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우수 운영사찰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운영사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를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운영사찰들에게는 개방적 사고를 주문했다.

전 교수는 "문화관광목적지로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광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지자체가 갖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종교적 편견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원로부의장 원경 대종사 원적

12월 10일 용주사서 영결식 엄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 대종사의 영결식이 12월 10일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원경 대종사는 12월 6일 오전 주석처인 평택 만기사에서 원적했다. 세납 81세, 법랍 62세.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총무원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는 무생의 세계로 환귀해 시종이 없고 생멸이 없는 적멸의 삶을 이뤘다"며 "여기 모인 대중의 비원을 듣고 우리 곁에 오셔서 불일을 밝히고 조계의 선풍을 드날려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도사에서 "큰스님의 삶을 반추해보니 우리 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무상법문과 다름이 없다"며 "일생을 금강의 정진력과 가르침으로 살아오신 대종사님이시여, 칠보연못의 연꽃 위에 좌정해 머무시다가 본래 서원에 따라 이 사바에 돌아오셔서 다시금 널리 교화를 드리워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1941년 충주에서 박헌영의 아들로 태어난 원경 대종사는 한산 스님을 따라 화엄사 등에서 행자생활을 하며 경전을 익혔다. 1960년 송담 스님을 은사로 불문(佛門)에 들었고 묵묵히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대종사는 중앙종회의원과 청룡사, 신륵사 주지 등을 지내며 종단 발전에 기여했다. 2014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2월 10일 용주사에서 원경대종사 영결식을 엄수했다. 사진제공=조계종

동국대 건학위, 4개 핵심사업 집중 추진

12월 8일 첫 연석 회의 개최해
교육 · 의료 · 지역 건학위 나눠
세부 사업 지정…매월 점검도



동국대 건학위는 12월 8일 제1회 기본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점추진사업 등을 소개했다.

동국대 건학위(위원장 돈관)는 12월 8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제1회 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서울 정각원장 진명 스님, 경주 정각원장 철우 스님, 경주 불교문화대학장 혜명 스님, 일산불교병원 법사 능지 스님, 경주병원 법사 혜능 스님, 서울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 경주 불교학부 석길암 교수, 산하학교 수석교법사 이학주 동대부여고 교법사가 참석했다. 또 박기련 건학위 사무국장, 지정학 건학위 사무처장, 이창한 건학위 대외협력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점추진 사업이 소개됐다. 건학이념구현사업은 크게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건학위는 이날 건학위 기본기관장들의 연석회의 정례화 등도 의결했다.

돈관 스님은 "매주 목요일 고문 스님을 모시고 봉은사 등에서 보고를 하고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건학위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힘이 난다"며 "대학 평가에서 9위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분들의 역할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기본기관들은 건학위 활동의 주요한 축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4대 종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12월 6일 국회 앞 긴급회견
"법제정이 공존사회 출발점"



4대종단 등은 12월 6일 국회본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4대종단 · 정의당 ·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월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후보, 이종걸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장 등이 동참했다.

동참자들은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고, 국민동의 10만 명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14년째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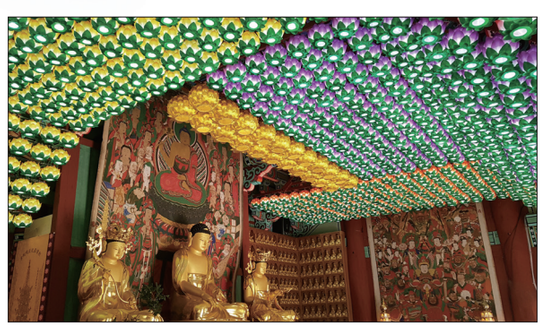
조계종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공존의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평등의 이로움을 알고 널리 알려서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가지는 안전하고 희망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인권선진국으로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